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어떻게 살 것인가  
(何以安身立命 - 한국어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학과

여 한 솔

2024년 2월



# 어떻게 살 것인가

( 何以安身立命 - 한국어번역논문 )

지도교수 김 중 섭

여 한 솔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여한솔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趙成植



위

원

宋 咳 宣



위

원

金 中 夏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4년 2월



목차

서문 / 2

유교, 기독교, 불교 그리고 현대인의 마음세계 / 15

세속화 시대의 마음의 병 / 16

우리는 아직도 집착이 필요한가요? / 25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 32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경쟁 / 44

현대인은 어떻게 죽음에 직면하는가? / 50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 50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 61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죽는다 / 69

## 서문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고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으며  
믿음의 시기이자, 의심의 시기였고  
빛의 계절이자, 암흑의 계절이었으며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 무엇도 없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도 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속 명언이 다시 한번 하늘에 메아리치는 듯하다. 이 낯선 시대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위치와 이익, 가치관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이 시대는 찢겨지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졌지만 이해하고, 설명하고, 적응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 낯선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지식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식인이라는 것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정신이다. 고(故) 에드워드 사이드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는 ‘지식인은 아마추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며 ‘이들에게 연구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것과 같은 취미이자 천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루이스 코저는 지식인은 사상에 기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한다. 지식인은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와 자신의 이성을 가진 계몽 세대를 전형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이다.

천인커(陳寅恪) 선생은 ‘자유와 사상, 자주적 정신’이라 하였고, 공자 역시 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지어도(士志於道)’라고 하였다. 사(士)는 고대의 지식인을 말하며, 지어도(志於道)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개인, 사회, 세계, 더 나아가 우주의 근본적인 도리를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 즉 지적인 측면을 뜻하며, 둘째, '지(知)'뿐만 아니라 '행(行)'하여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는 도를 실천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왕양명(王陽明)선생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칼 마르크스의 정신과 일치한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로비 계단의 정면에는 ‘철학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마르크스의 명언이 새겨져 있다.

고대 중국에는 도대체 누가 도를 대표하였는가? 황제는 천자라 하여 하늘의 뜻과 도리를 독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중국사상사의 권위자인 장하오 교수는 고대 중국에 이중 권위가 있었으며 첫째 권위는 정통(政統)을 대표하는 천자요, 또 다른 권위는 하늘의 뜻과 도리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며 도통(道統)을 대표하기도 한다 하였다. 황제가 위엄이 있다 한들 공자를 존경하고 공자의 묘에 참배를 해야 했는데 공자가 황권과 다름없는 권위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통이었다. 황제가 하늘의 뜻을 대표하는 지는 황제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전권은 사대부에게 있었고, 사대부는 해석의 전권을 독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을 계승하였기에 맹자의 ‘금전이나 권력에 미혹되지 않고, 가난이나 비천함으로 인해 기개가 꺾이지 않으며, 무력이나 권세의 위협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다.’의 대장부의 기개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하늘의 뜻을 책임지는 지식인들을 ‘문화의 운명을 위탁받은 사람(文化托命之人)’이라 부른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고통을 품어왔다. 이런 고통은 ‘우환의식(憂患意識)’이라 불리며 국가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지만, 지식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 고통스러워한다. 지식인이라면 가족과 국가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국가와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태생적으로 감정에 치우친다 한들, 국가와 나라, 세계에 대한 감정이 없다면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삶의 표면에 있다’라고 말한다. 깊이 들어가서 따지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겠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라는 속담처럼 많은 것들이 명백해지면 고통이 올 것이고, 세상을 알게 되면 만물이 쓰레기로 여

겨지며, 세상은 잔인하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본성을 알아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판교(鄭板橋)는 ‘난득호도(難得糊塗)-어리숙하고 멍청하게 처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도가(道家)의 삶의 방식의 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가(儒家)의 방식은 반드시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고, 끝까지 파고들어 진상을 알아내야 하며 세상, 인생,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쳐 안 되는 줄 알더라도 드러난 암담함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의 운명은 고통과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지식인의 숙명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인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루쉰(魯迅)이 쓴 「나그네(過客)」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켜보고 지나간 역사로부터 배운 지성의 지혜와 정신의 뒷받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돌아보면 옛날을 회고하게 된다. 나에게 있어 가장 그리운 옛날은 하나는 중화민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80년대이다.

중화민국은 1911년부터 1949년까지 반세기도 채 되지 않는 시대를 보낸 나라였다. 하지만 단명한 이 시대는 풍요롭고 화려하여 ‘화려한 난세’라고 불리기도 하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중화민국스타일’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중화민국스타일’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중화민국스타일’의 첫 번째 특징은 ‘순수함’이다. 중국 근대역사에 서남연합대학이라는 유일무이한 대학교가 있다. 7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 157명의 양원원사와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하는 세계 교육사의 기적을 일으켰다. 서남연합대학은 신화가 되었고, 절창이라고도 불린다. 내가 대만에 갔을 때, 대만 친구가 말하길 젊었을 적엔 그들 모두 대만판 <청춘의 노래>를 읽었는데 바로 루차오(鹿橋)의 장편소설 「미앙가(未央歌)」이다. 후에 이 책을 사서 몇 페이지를 읽었는데, 조금 보기 어려웠다. 서남연합대학의 생활을 쓴 소설이었는데 소설 속의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순수하여, 조금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설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반나절을 생각한 결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마음 또한 피폐해지고,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져 이미 즐기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순수한 시절을 생각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서남연합대학은, 학생과 교사 모두 아주 순수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 시기에 전방에서 전쟁 중이었으나 후방에서 책을 보았고, 일본놈들의 비행기 폭격으로 인하여, 대피경보가 울려 방공호로 피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장군의 결전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그들의 전장은 학술직에 있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이 거장들은 많은 고전을 써내었다.

‘중화민국스타일’의 두 번째 특징은 ‘덕행’이다. 중화민국시기 1930년대 북평(북경의 옛 명칭)에는 ‘마님의 응접실’이라는 것이 있었다. 응접실 주인은 당시 북평지식계의 ‘여신’이라 불린 린후이인(林徽因)으로,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하였을 뿐 아니라, 사교성 또한 매우 뛰어났다. 매일 오후 그녀의 집에는 많은 학자와 작가들이 모여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학문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여 위진(魏晉)명사의 고견과 기개를 보여주었다. 매일 ‘마님의 응접실’에는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기품있고 호방한 신사이자 대철학자인 진웨린(金岳霖)이 왔는데, 그는 린후이인의 남편이자 유명한 건축가인 량쓰청(梁思成)보다 지혜롭고 유머러스하며 훨씬 매너 있는 남자였다. 어느 날, 린후이인은 매우 마음 아픈 모습으로 남편에게 “제가 진웨린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신 역시 사랑해요. 어떡하면 좋죠?”라고 하였고, 남편인 량쓰청은 하룻밤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그다음 날 량쓰청은 린후이인에게 “생각해보았는데,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아닌 진웨린이라는 생각을 했소. 내가 물러나지요.”라고 말하였다. 린후이인은 감동하였고, 곧바로 진웨린과 얘기하였다. 진웨린은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얘기하였다. 다만 그는 린후이인과 량쓰청에게 “단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 매일 오후에 찾아와 차를 마시게 해주세요.”라고 하였고 후에 이 셋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린후이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량쓰청은 죽기전 아들에게 신신당부하였다. “내가 떠난 후에 진웨린을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덕행은 중국 고대 군자의 미덕과 서양식 로맨틱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시대에서, 중국과 서양의 덕행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였다.



량쓰청, 린후이인, 진웨이린 세 사람의 일을 고립된 사건이나 상류층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 좌익 지식인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기가 있다. 취추바이(瞿秋白)는 상해대학에서 재직 중, 그의 제자였던 양즈화(杨之华)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양즈화는 초기 중국공산당원 중 가장 아름다운 미녀로 유명했고, 유부녀였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취추바이는 그녀의 남편인 선젠룽(沈劍龍)과 담판을 지으려 저장(浙江)으로 찾아갔고 뜻밖에도 매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에 <중화민국일보>에는 세 편의 광고가 실렸는데 첫 번째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선젠룽과 양즈화가 헤어졌다.’, 두 번째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취추바이와 양즈화가 연애를 시작했다.’, 세 번째로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선젠룽과 취추바이가 친구가 되었다.’였다. 정차오린의 기억에 따르면, 어느 날 취추바이와 양즈화의 집에 갔을 때, 이야기 도중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취추바이와 양즈화가 소개하기를 “이쪽은 선젠룽이에요.”라고 하였다. 취추바이와 선젠룽은 오랜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고, 양즈화는 선젠룽을 여동생을 시집보낸 친오빠처럼 대하였다. 물론 단순히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여길 수 있고, 후대에 사람들이 추가한 내용도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특별한 소재들이 없기에, 이러한 이야기 또한 없어지게 되었다.

‘중화민국스타일’의 세 번째 특징을 나는 ‘재미’라고 부른다.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막론하고 모두 문학적 교양과 문화적 품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중국 고대 사회의 풍조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계급의 차별이 없었는데, 이는 사농공상(士農工商) 4대계급이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동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첸무(錢穆)선생은 계급의 구분은 없지만, 인품의 구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인품이란 바로 문화의 분층이다. 청류와 탁류는 그 경위(涇渭)가 분명하다.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은 전통문화의 인품을 추구하였다.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데 그 인문학적 교양은 오늘날 문과 교수들보다 훨씬 우수하다. 예시로 노벨상 수상자인 양전닝(楊振寧)교수의 고전문학 교양수준은 왕위안화(王元化)선생조차 극찬하였다.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은 중국과 서양의 학문에 통달하고, 고금을 아울렀다.

저명한 철학자인 탕용퉁(湯用彤)선생은 북경대학교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뿐 아니라 인도의 철학과 불교, 중국의 송명시대 이학과 위진시대 현학을 강의하였다. 그의 제자 장치즈(張岌之)는 “탕선생님이 강의하는 중국철학은 중국철학처럼, 서양철학은 서양철학처럼 느껴지기에 배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탕용퉁 선생은 ‘중서의 융합’과 ‘고대와 현재의 연결’을 제안했고, 배타적이지도 복고적이지도 않게 중국, 서양, 인도의 3대 문화를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연구 하였지만, 중국문화를 주체로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천인커 선생이 제안한 ‘한편으로는 외국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지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신파 중의 구파’의 문화적 태도이다.

첸리첸(錢理群)교수는 오늘날 청화대, 북경대 학생들은 ‘정교한 이기주의자’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오늘날 중국의 문학계에는 ‘문화가 없는 학자’와 ‘재미가 없는 문인’만이 남아 있다는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문화가 없고, 단지 재미없는 전문가일 뿐이며, 본인의 전문분야를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무지하다. 일부 문인들은 약간 이나마 문화적인 것 같지만 재미가 없고, 그들이 쓴 글 역시 관심도가 낮다. 학술은 품격과 재미를 중시하여야 한다. 과학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대표자이며, 중력파의 발견은 물리학에서 최고의 품격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성 이론과 중력파의 발견이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지나치게 실용에 치우쳐, 과학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성공만 묻고, 재미를 묻지 않는다. 현재 학계는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만 급급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재작년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학의 4학년 학생이 대학원 면접을 신청하였는데, 자신이 이미 교수와 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문은 기본적으로 주관이 없고, 학술적 가치가 없으며, 학문적 품격이 떨어진다. 나는 그에게 대학시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의 학술적 품격을 키우는 것이지, 급하게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답장하였다. 본인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평범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시대에 그 학생이 배운 것은 단지 성공이란 글자이고, 논문을 보내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품격이란 두 글자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중화민국의 일류 대

학에서는 글을 발표하는 것은 그다음이며, 글이 좋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 천인커 선생은 그 당시 대학 졸업장 없이 글 한편을 발표하였다. 량치차오(梁啓超)가 그를 청화국학원에 지도교수로 추천하였고, 청화대학 총장이 난처해하자, 량치차오는 화를 내며 “천인커의 글 반 편이면 저 량치차오의 모든 글과 맞먹습니다!”라고 말했다. 청화대학 총장은 그 말을 들은 후 량치차오가 이렇게나 인정하는 천인커를 바로 임용하였다. 총장은 그가 신임하는 량치차오의 안목을 믿었고, 거장의 학술적 품격을 믿었지만, 숫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화민국’의 네 번째 특징은 ‘존엄성’이다. 지식인들을 지키는 핵심가치는 인문주의이다. 인문주의의 핵심은 사람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 고귀한 것은 첫째가 생명이고, 둘째가 존엄성이다. 문명화된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회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년 전 난징대학 학생들은 《장공의 체면》이라는 연극을 만들었는데, 항일전쟁 기간 동안 남경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대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다.

당시 장제스(蔣介石)는 중앙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세 명의 교수를 식사에 초대하였다. 세 명의 교수 중 한 명은 장에게 불만 있는 좌익 지식인, 한 명은 청고(淸高)한 소요파(逍遙派), 또 다른 한 명은 정치적 욕심이 많은 보수파였다. 그들은 각자 생각이 있고, 참석하고 싶지만, 행여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였다. 장총장에게 체면을 세워주느냐 마느냐가 이야기의 중심이었다. ‘천자가 불려도 배에 타지 않으니’, 중화민국의 지식인은 존엄성이 있었다.

1944년 교육부는 탕용통 선생의 대표작인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에게 최고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탕용통 선생은 매우 불쾌해하며 친구에게 “그동안 내가 학생들에게 점수를 줬는데, 감히 누가 내 책을 평가하나!”라고 말했다. 권력 앞에서 그는 오기가 있었고, 관리를 스승으로 삼기 싫어했으며, 민중과 괴리되고 무학 무능한 관료들을 무시하며 “누가 감히 내 책을 평가해? 그들이 이해나 할 것 같나?”라고 하였다. 중화민국 지식인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은 인간의 존엄성과 지식인의 지조이다.

이렇게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을 칭송할 때 일부에서는 중화민국에는 썩은 지식인들은 없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첸중수(錢鍾書)가 쓴 <위성>을 보라, 그 소설 속의 삼려대학은 바로 그가 재직했던 람전사범대학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속물과 썩은 사람들이 있는가. 확실히 모든 시대마다 깊이 없는 학자, 속물들은 있기 마련이다. <유림외사>에 등장하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은 다 속물 아닌가? 그러나 서로 다른 시대를 비교하자면, 어떤 시대에나 썩은 지식인들이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와 풍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중화민국시기에 정말 많은 속물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한 무리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민국스타일’이 학계의 풍기를 주도하여, 속물들과 썩은 지식인들은 공공연하게 대놓고 그 소인(小人)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겉과 속이 다른 위군자(僞君子)밖에 될 수 없게 하였다. 진정한 군자가 있고, 좋은 풍조가 있으니, 학계는 정직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나쁜 것 갖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만약 당신이 중국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미국 역시 안 좋은 것이 많다고 얘기할 것이다. 타인의 단점으로 자신의 단점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문화와 문화를 비교하고, 민족과 민족을 비교하고, 시대와 시대를 비교할 때, 단점이 아닌 정도와 풍조를 비교해야 한다. 나는 레닌이 인용했던 러시아 속담을 기억하고 있다. ‘매는 때때로 닭보다 낮게 날지만, 닭은 결코 매처럼 높이 날 수 없다.’ 나에게 있어 중화민국은 그리워할 만한 예전이다. 또 다른 그리운 예전은 1980년대이다.

1982년 졸업 이후 학교에 남은 지 벌써 34년째이다. 아무리 견고한 군영이라도 흐르는 물처럼 병사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은 반복되는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생 학생들이 차례차례 캠퍼스를 거쳐갔고, 지금 교실 안에는 90년대생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꽃이 지고 꽃이 피고, 돌아오는 봄은 과거의 그 봄이 아니고, 다시 핀 꽃은 예전 그 꽃이 아니다.

30년의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캠퍼스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가? 두 가지 이미지가 나의 뇌리를 스쳤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예전의 캠퍼스가 격동의 바다였다면, 그 후의 캠퍼스는 무거운 짐 냄비가 되었다.

몇 년 전 중국에서는 ‘80년대’ 향수가 불었다. 나 역시 1980년대 계몽운동의 정신적 아들이임을 인정해야 한다. 시간은 2020년대에 이르러 나의 생각은 시대를 따라 나아갔지만, 내면의 영혼은 전과 다름없이 80년대를 형상화하였고, 마치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유민(遺民)같다.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7년 1기 대학생으로서 2000년에 나는 < 대학시절 : 나의 정신요람>이라는 회고록을 썼다. 한 70년대생 학생이 나의 글을 읽은 후, 부러워하는 듯하며 “선생님, 80년대 캠퍼스는 정말 재미있었겠군요!”라고 하였고, 또 다른 80년대생 학생은 의심 가득한 얼굴로 “80년대가 정말 그렇게나 좋았나요? 그 시절 사람들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1980년대가 그렇게나 화려한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이야기인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1980년대가 현실을 비판하는 역사적 상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를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나는 단지 80년대가 지금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생기와 활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 시절의 캠퍼스는 이상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지나간지 얼마 되지 않은 혁명 시대의 잔여물이다. 혁명은 죽었다, 혁명 정신 만세. 시대를 초월한 혁명 정신의 핵심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초월이며, 프로메테우스식으로 유토피아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비록 이전의 혁명 이상은 사라졌지만, 혁명 시대를 거쳐 온 흥위병 세대의 학생들은 여전히 이상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은, 중화민족이 세계에 통합되어 현대화된 내일에 대한 동경으로 대체되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유독 정신적인 삶을 중시하여 물질적, 실리적이지 않았으며, 내면에 열정이 들끓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진 10년 전 CCTV <동방시공>이 직접 연출, 제작한 갈라쇼를 본 적이 있는데, 구조상 혁명 시대의 붉은 경전, <장정조곡>을 응용하였다. 나는 1980년대 분위기에서 온 그 세대가 기성세대의 혁명가들과 얼마나 흡사한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시절, 캠퍼스의 하루하루는 떠들썩하고 흥미진진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의 생활은 지금과 비교하면 지루하고 특별한 부분도 없었지만, 캠퍼스의 문화생활은 현재 대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많은 학술강연, 공개토론회, 연극공연, 시 낭송, 학교에서 학부, 학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생동아리가 학생들의 가입을 기다렸다. 달리 말하면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고, 청춘의 불꽃을 태우며,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 지역인민대표 선거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선거 경쟁에 참여했고, 본인들의 열정적인 연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대학은 최고의 시민 학교이다. 어떤 종류의 캠퍼스 생활이든, 곧 그에 상응하는 사회인이 존재한다. 단단한 강철과 같은 도의를 지키는 시민일 수도 있고, 식견이 좁은 시정잡배일 수도 있다.

그 시절, 캠퍼스에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다. 이 해방은 사상의 해방이자 제도의 해방이며, 더욱이 개인의 해방이다. 과거의 체제는 얼음이 녹듯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체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개방된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미래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엄청나게 자유로워졌고, 전통적인 ‘좌파’의 이념과 제도가 여전히 강하고 한파처럼 밀려왔지만, 스승과 제자의 마음은 자유롭고, 연구 또한 자유로우며, 시간은 더욱이 자유롭다.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고 생활이 빈곤할지언정,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속박하는 규율도 없고, 거부하기 어려운 제도의 유혹도 없고, 승진 등급도 없지만, 오히려 시원스럽고 자유로운 지식인의 정신적 여유가 많아졌다.

물론 1980년대가 전부 밝은 것은 아니었고, 동틀 무렵의 아침 햇살 뒤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상주의의 거침없는 기세는 교만과 오만함을 의미할 수 있으며, 과도한 정치 참여는 비극적인 정치적 위기를 내포하고, 절제되지 않은 지나친 생각들은 이성의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30년 후, 우리가 ‘후견지명’의 지혜로 1980년대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여전히 80년대는 사라지게 하고, 그 영혼은 살아남게 하라고 말 할 것이다. 그 영혼은 바로 정신적 활력이다.

정신적 활력은 청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지식인들의 정신적 계보로 말하자면, 1980년대는 5·4운동의 부활이었다. 무엇이 5·4정신인가? 민주주의? 과학? 아니면 도덕?. 나는 민주, 과학, 도덕 이외에 더 중요한 5·4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청춘이다.

1916년, 5·4운동의 정신적 지도자 중 한 명인 리다자오(李大釗)는 일본에서 중국을 바라보며 열정을 가득 품고 <청춘>이라는 명작을 써내었다.

봄날은 햇살이 가득하고, 동풍은 얼음을 녹여, 멀리 영도(瀛島)에서 조국을 돌아보니, 우울한 상들을 속살하고, 일변하여 화창하고 아름다운 상으로 변하고, 얼음과 눈이 매섭게도 내리는 하늘은, 어느새 꽃이 만발한 하늘로 변하였다. 청춘의 순수함에 몸을 숙이고, 청춘의 달콤함을 맛보고, 청춘의 은총에 젖어,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젊은 나, 내 가족은 청춘의 가족으로, 나의 나라를 청춘의 나라, 나의 민족을 청춘의 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 풀과 나무가 들판에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사회에 존재한다. 이제부터 뿌리가 널리 심어져 뽑힐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것이며, 몇 년 후면 뿌리가 얽혀 세계 곳곳으로 자라나는 중국 청년들의 우뚝 솟은 무성함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 영토는 풍요로움을 되찾을 것이며, 이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이 바로 중국의 청춘이라고 할 수 있다.

5·4운동의 지식인들은 리다자오가 말한 청춘의 정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청춘의 열정은 천두슈(陳獨秀), 리다자오(李大釗), 후스(胡適), 루쉰(魯迅)등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푸쓰넨(傅斯年), 뤼자룬(羅家倫), 원이뉘(聞一多), 뤼룽지(羅隆基) 학생세대에도 두드러져 열정이 충만한 또 다른 5·4운동인 신문화운동과 애국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가 이전의 정신적 계보에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생기 가득한 이러한 청춘의 정신이다. 어느새인지 모르게 청춘의 정신은 중국에서 사라져버렸고, 캠퍼스에서 흩어졌으며, 청년들의 영혼에서 죽어갔다. 1980년대에는 사회가 대학을 따라갔다. 대학은 사상의 리더이자 선구자로서 시대의 선두에 섰지만, 오늘날 대학은 사

회의 유행, 언어, 가치관념을 곧이곧대로 따라가고 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들어가면서부터 미리 사회에 진출하는 격이 되며, 수많은 경쟁과 계산, 실리가 캠퍼스를 가득 채운다. 대학은 직장의 예비역이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성인사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졌다. 모든 것이 성인의 규칙으로 되어있고, 대학 곳곳에 노티나는 노숙함과 약삭빠른 처세술로 가득 차 있다.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학술 승진 규정은 젊은 교사들을 숨 막히게 하고, 글을 쓰는 것은 집, 직함, 과제 등 생계를 위해 쓰는 것이 되었다. 재미있는 인문학과 과학이 결국 무의미한 생계수단으로 변할 때, 청춘과 활기는 사치스럽고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다. 어떤 학생은 책을 좋아하고,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갖고 있으며,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경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소위 ‘정치 미성숙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호의를 가진 어른들의 경우 타이르듯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무 딱 막히게 살지 말아라, 현실을 좀 보고, 국정 이야기를 하지 말고, 쓸데없는 책을 조금만 보아라. 그리고 졸업장, 직업, 돈에 대해 더 생각하고, 빨리 결혼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살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한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오늘날 중국에서 대학입시의 지휘봉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휘두르고 있다. 원스톱 입시교육으로 중·고등학생들은 일찌감치 청춘과 작별했고, 초등학생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었다. 작문을 포함한 모든 시험 문제는 이해하기 힘든 표준답안이 있고, 위추위(余秋雨)식 상투어가 개성 있고 순수한 아이들의 표현을 대신한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채 오기도 전에, 입시교육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더욱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까지 느끼며 이미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캠퍼스가 함락되고,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마솥이 될 때, 중국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래서 1980년대에 대한 향수와 지나가 버린 찬란했던 시간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이 생겨난 것이다. 청춘의 정신은 신화적 전설이 되어버렸다. 1980년대에는 그것이 삶의 일부라고만 느껴졌고, 잃어버린다면 산소가 부족해 질식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캠퍼



스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활기가 넘치는 에덴동산이 아니다!

그렇다고 1980년대, 열정적인 혁명 이후의 시대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처럼, 1980년대는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며, 더군다나 신격화된 1980년대에는 처리해야 할 독소도 남아 있다. 그러나 1980년대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기질과 선진(先秦)문명, 성당(盛唐)시기의 기상, 동림당(東林黨)과 5·4운동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정신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청춘의 생기이다.

이 책은 지난 2년 동안 내가 상해에서 주최하고 참여한 인문학 포럼과 살롱의 대화를 모아 놓은 것으로, 토론의 주제는 모두 지식인의 국가, 세상에 대한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도시 주변의 사회문화현상부터 국가와 세계의 대사건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정치적 논평이든 공리공담이든 모두 중국 사대부의 정신적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이번 대화에 참여한 학계 친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일일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점을 용서하기 바란다. 텐센트 플랫폼·상해문화담의 주최측 텐센트 문화회사, 문경·징안(靜安)품서회의 주최측인 문경문화출판회사, ECNU-UBC 포럼의 주최측인 화동사범대학-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중국세계연합연구센터, 대화를 위해 우아한 장소를 제공해준 상해 신화서점 징안점과 그 총지배인 장춘화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이 있었기에 상해의 적막함이 덜해졌고, 상해 도시 정체성에 걸맞은 문화적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할 분은 중신출판그룹의 리난 선생님이다. <SOHO小报>, <信齋>부터 이번 출간까지 서로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었다.

유교, 기독교, 불교 그리고 현대인의 마음세계

쉬지린(许纪霖), 천원(陈贇), 류원진(刘文瑾), 청칭(成庆)

세속시대의 도래로 사람들이 점점 물욕, 돈과 이익을 추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현대인의 마음은 말라버렸고, 상해의 부자들은 “나는 가난해서 돈 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탄식한다. 돈과 성공은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걱정, 불안과 고통을 가져온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영혼의 세계에서 삶의 의미와 생명의 귀결점을 찾고 있는가? 2014년 10월 14일, 화동사범대학-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현대중국세계공동연구센터는 화동사범대학 민항캠퍼스에서 토론회를 열고 세 명의 젊은 학자를 초청하여 유가, 기독교와 불교의 시각에서 현대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하였다.

쉬지린 :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화동사범대학교에서는 많은 학술 강의를 진행했고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학교에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분위기, 인문적인 분위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위 인문학은 당연히 학술과 관련이 있지만, 학술로 완전히 대표되지는 않습니다. 학술은 우리의 뇌와 관련이 있지만, 인문학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고, 이 마음은 우리의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바쁘고 충실하게 생활하지만, 항상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토록 바쁘게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청춘 시기의 말할 수 없는 우울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현대의 심리학을 통해 시험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1980년대 심리학에 푹 빠져 있었는데, 후에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베이징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심리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종교에 기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 천천

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막막함이나 혼란스러움 같은 문제들은 과학적인 심리학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어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난에 맞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등 문제를 현대과학의 다양한 지식에서 해답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각 주요 종교 가운데에는 오히려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4회 ECNU-UBC 토론회에서는 세 분의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실 분은 철학과의 천원교수님이십니다. 천원교수님은 유가(儒家)에 대한 깊은 연구와 삶의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중문학과의 류원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프랑스 문학과 철학, 그리고 서양의 기독교를 연구하며,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삶의 체험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학과를 졸업하고, 상해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청칭 교수님이십니다. 청칭 교수님은 중국의 불교 사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분을 모시고 유교, 기독교, 불교의 시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대인의 마음속 문제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생각과 선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속화 시대의 마음의 병

사회자로서 먼저 세 교수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미 세속화된 사회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막스 베버의 말에 의하면 세속화는 ‘탈주술화’의 시대,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혹은 다신(多神)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속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만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신은 조공 원수(趙公元帥, 재산을 관할하는 재물신)입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 성공이란 것은 귀징밍(郭敬明)의 말에 따르면, 권력과 부의 최고점에서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현대인의 안식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속적인

의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마음은 더욱 허무하게 느낍니다. 상해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난해서 돈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허무함을 느껴 사회 윤리질서와 도덕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도덕과 마음의 무질서는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것인가요? 유교, 기독교, 불교를 연구하는 세 분 교수님이 이 시대의 마음의 병을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유교를 대표하는 천원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천원 : 감사합니다, 허 선생님.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유교가 대중화된 시대에 오히려 과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허 선생님이 방금 이 시대를 진단하셨는데, 베버의 ‘탈주술화’, 신들의 전쟁, 허무주의 등 이런 단어들은 이 시대의 위기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는 세 마디가 있는데, 상황은 좋고, 질서는 엉망이며, 인심은 매우 나쁘다 입니다. 전통적인 말로 말하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천리(天理)를 위배하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아주 큰 문제점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시대적 위기의 우선적, 일차적인 증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교나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판단은 사실상 시대와 사회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게끔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때, 허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 인심, 질서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잇따르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 정의가 없고 사회가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에게 먼저 주고, 그 이유를 각자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저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는 유학의 ‘반구제기(反求諸己)’ 혹은 위기지학(為己之學)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 한다’. 겉보기에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이 말은 우리가 수년 동안 인생의 길에서 방황해야 그 소박함과 단순함 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니다. 우리는 현재 천국의 소리를 좋아해서 발밑 대지를 소홀히 하고, 숭고하고 엄숙한 정신을 지나치게 동경하여 우리 몸의 리듬을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몸에서 나오는 소리와 리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유롭다는 것은 마음이나 정신이 우리 몸의 리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나'의 의지와 정신을 표현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행동의 통제능력을 넘어서는 더 큰 질서로부터의 부름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교에서는 '하늘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시간대는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해에서 보스턴으로 날아가면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태양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빛을 받는 감각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신체에서 생체시계의 리듬은 실제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대의 정치종교체제가 신체의 생물성과 정신성을 분리하고 생물성을 기계장치나 무의미하고 허무적인 용기로 강등할 때, 그것은 사실상 개념과 가치의 신체 침탈과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가 말하는 '가치의 폭정'과 머우쥬싼(牟宗三)이 말하는 '관념의 재해'가 현시대 정치생활에서 매우 보편적인 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이를 하나의 사회문제, 시대적 문제로 확대했을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조직의 형태, 사회정치적 형태, 그리고 모든 조직화된 종교의 형태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의 가치를 전환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정복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화된 종교는 영혼 시장의 공급자와 같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와 생명을 허무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과 몸이 허무화된 후에야 가치의 이식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정치와 조직화된 종교의 방식은 모두 이러한 개념을 동원하고 담론을 조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묘한 경지에 도달하여

당신은 동원을 느낄 수 없고 조직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조직에 내재된 방식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의지에 가치를 심어 당신을 이용하고, 그가 필요하는 그런 하나의 주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시대의 마음의 위기는 한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오늘날 이 '마음의 위기'라는 단어 아래 표현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책임 포기뿐 아니라 사회정치, 교화체계가 개인을 지배하고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정신은 숭고하고 가치는 위대하며 비천한 것은 본인의 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몸, 감각기관은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신의 의식, 마음, 정신이 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질병 자체는 신체에서 시작된다기보다 우리의 병든 정신과 심리가 신체를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병의 치료는 단순한 생물학적일 수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수록 필연적으로 심리적, 정신적 상태 및 방법의 조정을 수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학(儒學)은 우리 몸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다양한 가치가 있는 시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신체와 생명에 자발적인 리듬이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가 명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질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에서는 이것이 곧 하늘입니다. 당연히 하늘은 신에 대한 대안이나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작동방식 혹은 질서 구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귀를 기울이면, 생각을 바꿔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조직의 리듬이든, 개인 생활의 리듬이든 모두 동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결코 안정감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를 관리하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쉬지런 : 천원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여서 그런지 저도 7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철학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더구나, 교수님은 유가의 철학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과거 유가는 신체와 영혼을 양분했습니다. 몸은 절제해야 하는 욕망을 나타내나, 정신과 영혼은 고상하고 순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원교수님께서 특히 우리 몸을 직시하고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신체와 영혼의 양분에 대해서 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양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시각에서 볼 때 당대 세계의 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중국어과 류원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류원진 : 저는 제 스스로가 감히 기독교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과 함께 저의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천원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저는 우리의 운명을 제대로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허 선생님께서 ‘우리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 ‘세속화’의 시대, ‘현대성’의 시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속화가 무엇인지, 현대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속화란, 우리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접어들었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어느 정도 신을 대체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술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또 다르게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딱딱하고 경직되었기 때문에 못 견딜 때,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학과 예술의 위로를 찾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이 시대는 과학과 예술이 과거의 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죠.

이러한 이성적 시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성적 시대는 베버가 그의 저서<프로

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계속 이야기 한 주제인데, 이 책은 현재 사회과학의 기초가 된 책입니다. 베버가 서양 학계에 끼친 영향은 마르크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막스 베버는 왜 중요할까요? 그는 칼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문명, 인간의 본성, 정신적 등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 인류는 오늘까지 왔죠? 왜 우리 중국은 과거 시대와 단절된 것입니까? 이 단절은 어째서 일어난 것입니까? 베버는 서유럽에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생겨나도록 부추기는 개신교 윤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개신교 윤리만이 이런 자본주의의 출현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베버는 자본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윤, 욕구와 같지 않으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욕구가 무한해지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자본주의가 있었고, 어떠한 사회, 문명 모두 자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본주의는 이성적인 획득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성화는 제한과 경계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 감각입니다. 이렇듯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배경에는 일종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버는 것이 자신의 성취이고, 또한 사회의 성취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 사회,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돈 버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욕구가 절제된 것이 최초의 자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이러한 합리적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논리 기초가 있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결정하였습니다. 베버는 현대성의 특징이 '탈주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이성적 계산에 편입되고, 이것이 경제합리성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 계산은 자본주의의 종교적 원류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시작에는 개신교 윤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현대성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명에 깊숙이 스며들며 따라 세계화 단계에 이르면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된 경제 문명 속에서 개신교 자본주의 윤리의 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날 우리 중국은 윤리와 도덕의식이 결여된 경제적 합리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며,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거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애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감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의 욕구는 이러한 이성화 시대, 시장경제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까요? 한가지 방식은 비이성적인 방식입니다. 이성적 시대에 우리는 지나치게 억눌려 있고, 따라서 격렬하고 열정적인 연애로 생명을 '이성시대'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속, 윤리, 도덕 관념을 타파하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백년해로는 필요 없고, 한번 가진 적이 있으면 된다.'라고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사랑욕구의 또 하나의 표현방식은 경제적, 이성적인 배우자 선택 기준인데, 이는 우리가 경제적 이성 상태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자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저 공포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곧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죽음에 매우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동정심 정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포감도 약간 느낄 겁니다, 죽음이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타인의 죽음은 저의 또 다른 감정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완전히 경제적 이성의 통제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쉬지린 : 기독교에서 나온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막스 베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류교수님은 도구적 이성의 보편화, 자신의 정신적 죽음과 타인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무관심 등 많은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동양의 불타(佛陀)가 보기에 또 다른 광경일 것입니다. 이어서 청칭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청칭 : 오늘 주제를 보니, 갑자기 차별받는 기분이 드네요. 어째서 유교, 기독교,

불교 순서인가요? 유교, 불교, 기독교 순서가 맞는 거죠. 제가 상해대학교에서 불교 전공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불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유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교수님, 저를 구원해주실 수 있나요?” 묻기도 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미 이런 난처한 지위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당연히 불교의 지혜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5~6주 동안의 수업을 들은 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거품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다’라는 금강경의 구절을 외울 수 있고, 저보다 더 잘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라고 묻는다면 전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예로 학생들은 육조혜능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라든가 ‘번개 빛 속 봄바람을 베는 것(電光影裡斬春風)’ 등 구절은 익숙하기에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하긴 하지만 불교가 자신, 이 사회, 이 시대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불교의 이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교수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원적인 구조 안에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고방식은 주체와 객체, 나와 그 같은 이차원적 사고입니다. 다른 것들로는 신성과 세속이 있죠,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선종은 “도는 똥오줌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도가와 비슷한 것 같고, 장자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성과 세속은 불교에 있어 비등비등하며, 사실 같은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교의 핵심적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이원화된 사고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바로 ‘불이(不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종의 어록, <금강경>등을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도리로 자신 스스로의 마음세계를 진단해야 할지는 모를 겁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학생들을 마주할 때 불교로 이 시대를 진단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불교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낮은 종교라는 점입니다. 기독교나 유교에 비해 불교는 때때로 지나치게 초월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인터넷에는 많은 유머들이 있는데, 내용은 대개 앞에서 사람들이 거창한 도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청소하는 종이 와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단순명쾌한 도리로서 시간과 공간의 이치를 초월하여 사람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얘기하는 시각이 흔히 역사적 각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시간을 논할 때 모두 ‘아승기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개념은 셀 수 없고, 우리 인류의 의식에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관념 때문에 불교는 현대의 정신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불교인들은 시간이 끝이 없는데, 현재의 제한된 사회적 모습을 여기에서 진단하는데 그렇게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아마도 이 시대의 일부 정신적 증상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이 위챗과 웨이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해바라기씨를 까먹는 것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고,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게시판을 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것에 대한 관찰과 느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집착에 빠졌을 때, 모든 생각이 이 물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챗을 확인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꾸짖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범생이’모델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30분 동안 꺼놓는 겁니다. 핸드폰을 끄지 않으면 거의 10초마다 화면을 새로고침 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것으로 당신의 집착 때문에 생

겨난 것입니다. 당신의 집착은 핸드폰 사용, 여행가는 꿈, 좋은 직업을 갖는 꿈, 사회단체에서의 지위, 당신에 대한 주의 평가, 장학금 욕심 등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을 갖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회의 보편적인 증상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본 젊은이들의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불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 언제나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고, 심지어 숭고함과 신성함에 대한 집착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성함에 집착하는 것 역시 집착에 속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즐기면서 이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인생은 꿈 같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집착합니다. 이 시대의 증상을 점검하라면, 저는 역사나 사회이론의 시각에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도 집착이 필요한가요?

쉬지린 : 사실 저는 불교가 가장 온화하고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청청교수님이 시작부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의 위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셨고, 앞서 발표하신 두 분 모두 틀렸고, 신성함과 세속이라는 이원적 사고에 집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로서 우리 시대의 증상을 진단하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천원 교수님께서 사회책임감을 특히나 강조해주셨습니다. 공자는 도를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집착일까요? 천원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천원 : 방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류원진교수는 오늘날 이런 상황을 경제이성 때문이라고 보시는데, 그보다는 사회통치로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치기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제이성의 탓으로 본다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확실성과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확실성을 넘어 더 큰 확실성을 도출합니다. 유교의 입장과는 많이 다른데, 후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류원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만, 우리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비이성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강하지만, 육신, 우리의 존재, 감정은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니 과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했지만, 수상에 근접한 성공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양샤오카이(杨小凯)라는 경제학자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양샤오카이 선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기간 중 <중국을 어디로 가는가>라는 글 때문에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20세에서 30세까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함께 갇힌 정치범들로부터 수학, 영어, 경제, 기계 등을 배운 귀재였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3권을 아주 자세하게 읽었는데, 이는 그가 후에 자신의 경제이론을 제안하는 데 좋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샤오카이 선생은 정말 총명하고 뛰어난 자질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가까스로 오명을 벗은 후, 운명처럼 프린스턴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예일대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호주로 건너가 자신의 경제학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론과 저술은 권위 있는 미국 경제학자들로부터 천재적인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고, 오스트레일리아 사회과 아카데미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이 귀재는 평생 동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이 되던 때, 폐암과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는 '나는 항상 과학을 믿었지만, 내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도전에 직면하며 그는 기독교가 무엇을 의미하고 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력함을 느낀 그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청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구요? 저는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영생을 얻었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샤오카이는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면서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을 초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경쟁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사회이고,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모두가 경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사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우리의 법칙입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투, 증오 그리고 실패, 초조함,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쟁사회에 마주할 수 있을까요? 린수하오(林书豪)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계 선수가 농구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린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의 2014년입니다. 그해 그는 ‘린새니티’를 경험한 후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후, 모두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의 활약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린수하오는 그가 린새니티의 그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루저로 간주 됩니다. 그 자신도 극심한 불안 상태였고, 늘 자신의 불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후에 그는 어떻게 불안을 극복했을까요? 린수하오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빛나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사용하시리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길 2년

동안의 슬럼프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하나님께서 사실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멤버라면, 벤치 멤버의 위치에서 경기장의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고, 출전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출전할 수 없고, 그의 경력이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나고요? 하나님은 그의 성과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의 가치는 그의 시장가격이나 경쟁에서의 승리하는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원 : 아까 청칭교수님이 집착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제거한 이후, 즉 신과 세속, 신과 인간, 세계 등 이원적인 것을 제거한 이후, 아무런 장애가 없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유가의 관점에서 볼 때 '집착 제거' 자체에도 경계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원하든, 우리가 어떤 집착을 제거하든, 결국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일상에 대한 긍정과 현재의 책임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성공(性空)은 물론 '집착 제거'이지만, 결국 이런 '집착 제거'가 지향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집착 제거'는 저속화됩니다. 비록 자유롭고 장애가 없지만 아무런 절조나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회로를 통해 도달해야 합니까? 생활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어린이는 중국철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이상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무언가를 허무화함으로써 있는 무언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하나의 문제로 제기하고, 그 후에 생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유교의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불교는 정치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이제까지 정치적 방안을 낸 적도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본질적으로 탈정치화될 것입니다. 유교는 수신(修身) 방식에 맞는 정치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사람은 정치와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므로 더 나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기획과 계획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주제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집착을 지운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사회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신(身),-가(家)-국(國)-천하(天下)의 연속체이며, 이 연속체에서 '천자에서 서민까지, 모두 수양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 식사, 잠 자리 등 모든 것이 학식과 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왼발을 내디딜 때, 당신의 생각은 왼발 위에 있습니다. 오른발을 내디딜 때, 당신의 생각은 오른발에 있습니다. 당신이 걸을 때, 당신의 모든 의식은 당신이 걷는 길에 있습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먹는 것에 집중됩니다. 걸음으로 보기에 일종의 '집착'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피하고 생명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현대 정치 사회 전체의 메커니즘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결핍하고, 부족한 주체를 생산함으로써 안배된 관리 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있어 사실 그것은 소모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착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및 그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 사회의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런 소모를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신을 집중하고, 조금의 빈틈도 없이, 존중하고, 엄숙한 태도로 삶의 모든 일, 모든 말을 대해야만 당신의 소모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은 당신이 힘을 기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는 매일 만사를 처리하더라도 담담하게 행동하며 하루 종일 몸을 휘둘러도 신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무집착에 대해서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집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집착은 우리가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신설어(世說新語)에서 왕연(王延)은 '가장 위로는 무정하고, 가장 아래로는 정이 미치지 못하며, 정이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추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위로는 집요하지 않고, 가장 아래로는 집요함이 미치지 못하고, 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성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까? 보다 건강한 태도는 그것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쉬지런 : 천원교수님은 역시 유가이시군요, 유가가 가장 집요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지기불가이위지(知其不可而为之)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집착하는 정신, 태도입니다. 공자가 보기에는 세상에 반드시 목숨으로 추구할 모종의 가치, 특히 인문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칭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집착 제거'라고 하지만 '집착 제거'라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 아닐까요?

청칭 : 사실 천원 교수님의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송나라 때 이정(정이, 정호)이 '불가는 오직 생사로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삶과 죽음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공'은 허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는 것ですよ, 공은 본질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꿈처럼 말이죠.

가장 간단한 예로 이 물병을 보면, 표면은 실체이지만 본질은 무수히 많은 생멸하는 입자이며, 더하자면 에너지의 소멸일 뿐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병이 실제로 본질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물병의 '상(相)'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병'이라는 실체, 혹은 본질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은 끊임없이 사라지

고 있습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하고, 그것을 '무'가 아니라 '공'이라고 합니다. 중국 전통은 모두 '유무'를 말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병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지만 이 물건은 꿈과 같고 본질적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이론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허망함이 중점입니다, 이것을 허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어떤 분이 불교와 정치, 사회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은 모두 불교를 위주로 하는 정치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역사를 들여다볼 때 '원망'의 마음으로 유교, 기독교를 보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곤 합니다. 이는 주로 불교에 대한 유가의 오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불교가 실제로 진정한 정치 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중화민국 시대에는 유가의 쇠퇴로 인해 소위 '인간 불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대만에서는 약 30%의 사람들이 불교신자이고 또 약 30%의 사람들이 소위 도교를 신앙합니다. 이것은 모두 삼교(三教)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는 도태된 것이 아니고 허무화 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인터뷰에서 우리는 폐쇄적인 세속주의로 가지 말고 열린 세속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불교는 오늘날 이러한 개방적인 세속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버리고 출가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불상 앞에 재산을 갖다 놓고, 가장 비싼 향을 피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요구는 당신의 마음이 이 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유교 혹은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서로 죽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이 다원화된 사회에

서 어떻게 사회의 다원적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소위 세속주의자를 포함한 삼교(三敎)나 다른 더 많은 종교에 있어서 다원적 경쟁이나 대화의 상태여야 합리적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류원진 : 저는 두 분에게 각각 질문하고 싶은데요, 먼저 청청교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스테성(史鐵生)선생은 일찍이 어느 책에서 기독교와 불교 모두 고난에 관심을 두는 점에서 두 종교의 출발점은 같지만, 그 해결방식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서 고난과 마주하는데, 이는 세상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해탈을 추구하고, 그 방법은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가 현실세계에 대한 지혜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돼 몸에 해롭겠죠.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안전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고난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제시한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 고난을 직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아주 현실적인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저와 하느님의 관계는 제 삶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금욕주의를 원합니다. 방금 쉬지린교수님도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들어감과 동시에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비판하고, 거절하고, 투쟁하는 태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한 쪽(기독교)은 긍정적이고, 다른 한 쪽(불교)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정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천원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는 마치 샌드위치 같은데요. 기독교는 중간에 서서 양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교는 항상 현실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수천년 동안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유교는 실제 정치권력에 의탁하려 하고, 또 특정의 생산방식, 즉 농업사회의 생산방식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현대유교를 단지 사상과 이론으로만 활용한다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내면의 영혼으로부터 일종의 저항을 가지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특징 속에는 언제나 현실의 정치권력을 포용하려는 피할 수 없는 욕망이 존재합니다. 이 정권이 유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면 과거의 잘못은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유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유교 문화의 폭과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정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꾸기 힘든 성격 아닌가요? 당신은 이런 유교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태도가 유교의 상투적인 사회성과 현실성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유교에 대해 하는 비판입니다. 유교는 현세만 중시하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천원 : 류원진 교수님의 질문은 매우 훌륭합니다. 오늘 상황으로 볼 때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긴 역사를 살펴보면 교수님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선비와 왕이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정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가 '통치'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학자들이 중국의 전통정치를 개선 시킨 것입니다. 유교가 없었다면 전통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유학자의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해야 하는데, 일이 잘 안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가장 무도할 때에도, 유학자는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는 세상을 등지고 후회하지 않는 많은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동림당(東林黨)을 보세요. 그리고 주희(朱熹)를 보세요, 자신의 학문이 가짜 학문이라고 비난되어 그의 많은 제

자들이 그를 등지고 떠나려 할 정도인데, 이런 유학자를 형편없는 정치의 타협자이자 포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비판성은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보다도 더 크며, 심지어 오늘날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일 겁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깊이 느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학자를 중국의 역사로부터 떼어버린다면, 당신은 중국의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나라의 지방관리는 모두 선비들이었고, 그들이 한 곳에 가면, 먼저 그곳의 선현들을 방문하여 그 고을의 문화를 조성하고, 그들 두세 사람이 한 곳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도 매우 뚜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유교당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관료 메커니즘은 위만 있고 아래는 없지만, 과거의 유가에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백성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자신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충신일까요? '항상 임금의 악을 말하는 자'가 충신이라 합니다. 즉, 감히 직언하고 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반세기 동안 이런 충신을 몇 명이나 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같은 체제에서는 유교의 이런 측면을 의식적으로 은폐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지만 사실 역사와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교가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현실과의 긴장감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은 막스 베버가 중국의 종교체계에 대해서 내린 중요한 논단입니다만, 제가 방금 예시를 든 부분은 사실 분명한 반증입니다.

류원진 :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때때로 비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서구 정치사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교분리 현상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정치가 권력분립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체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교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가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하는 충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우리 역사에서 정교분리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교가 우리의 교인데, 정권과 거의 분리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정교일치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쉬지런 : 유교에 대한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유교는 지금 매우 뜨거운 주제이고 항상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청칭 선생님은 지금 막 항의하고 계셨고, 불교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으며, 방금 류 선생님은 불교가 너무 초월적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교가 정말 그렇게 초월적인 걸까요? 불교에도 세속적인 면이 있나요?

청칭 :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세속화된 불교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 사람들은 불교가 세속화가 안됐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충분히 세속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한 가지 요점은, 그리고 유교에서 불교를 비판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불교에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불교는 처음부터 정치가 인간의 궁극적인 정신적, 생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해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유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당신들이 지금 잘 살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불교 수록법회에서 <유가염구문(瑜伽焰口文)>의 초청문을 읽어보시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청이 무엇입니까? 불교가 망령을 천도하기 위해 과거 여러 왕후 장상과 명문 귀족의 망령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소청문은 소동파가 만든 것으로, 문장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당신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가 정치적 차원에서 충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세계에 대한 불교의 독특한 해석 때문이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해탈의 독특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약간의 혼란이 있다고 느낀다면, 예를 들어 생사 문제에 대해 의심이 있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말하기를, 그는 단지 선생님일 뿐이며, 당신에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세속화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유명한 불교 자선 단체인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자선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불교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불교의 초점은 자선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때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진정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린 : 방금 류원진교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양샤오카이(楊小凱)가 어떻게 죽음에 직면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젊고 이 문제가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가족, 친구,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은 린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직면한 좌절은 일반적인 좌절이 아니라 그의 생명, 그의 자아 가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생의 큰 좌절입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떻게 자신을 뛰어넘고 이겨냈습니까? 이 두 이야기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을 모시고 좌절과 고난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유교와 기독교, 불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의 생명 체험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칭 교수님을 만족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칭 : 우선 저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 속의 인물에 비하면 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몇 가지 예를 들려주면, 학생들이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이던 여학생은 신혼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제 이웃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을 놀라게 한 것은 저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11명이 있었는데, 그중 두 명이 졸업 후 몇 년 만에 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흔히 “선생님, 왜 이렇게 재수가 안 좋아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매일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 쉬 선생님에게도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후두암으로 사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흰머리를 가진 사람이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양한 문명적 환경으로 인해 죽음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중환자실이나 영안실에 가서 죽음을 관찰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매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제 주변의 사망 확률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학생들이 저를 재수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거꾸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엉뚱하게 이곳에 환생하여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이 얼떨결에 죽고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죽음에 관한 핵심 문제입니다.

저는 좋은 전공을 포기하고 문과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상해에 왔을 때 신문 편집자로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당시 월급이 6~7천 위안 정도였습니다. 학부졸업생에게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 선택을 하고 정착해서 좋은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남았고, 오늘날 제 월급은 그때만큼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 생명과의 연관성은 어디 있는지 등 인생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때 제 삶이 대학원 때문에 변질되었다고 느꼈는데,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모르겠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08년에 거의 1년 동안 미국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대인관계도 소통도 없이 공백에 빠져 있던 것이 저에게 흔치 않은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기숙사 옆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는 매일 수차례 저수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인생의 목표는 사실 목표가 없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떠올랐는데, 당시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심오해서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저는 인생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설정한 모든 목표는 단지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상상입니다. 이것은 매우 허황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연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매일 침대에 누워 자라는 뜻이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완성할지 알지만, 그것을 완성한 후에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온갖 환상을 품는 대신 놔두라는 뜻입니다.

물론 불교에 대한 저의 친근감은 이러한 경험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저는 파라티푸스에 걸렸고 일주일 동안 고열이 났는데 병원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열로 고생할 때 제가 환각을 보았는데, 모기장 위에 많은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에게 모기장 위에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정말이네, 많은 금붕어가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많은 환상을 만들어 내곤 합니다. 당신은 많은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은 금붕어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금붕어들은 모두 꿈과 같습니다. 금붕어들을 지나치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지만 그림자처럼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삶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지만 짜릿한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스쿨버스를 탈 때, 주변에는 각기 다른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은 우리 삶의 가장 멋진 과정을 구성합니다.

쉬지런 : 저 또한 교수의 입장으로, 청칭교수님의 인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서 류원진교수님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만, 혹시 본인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가 있나요?

류원진 : 저는 개인, 가정, 사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본과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고, 우한대학에서 언론학 석사 과정을 거쳐 북경대학에서 비교문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북경대학교 재학 중 프랑스로 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죠.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매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비교적 행복한 사람이고, 궁극적인 것을 찾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의 대답은 제 안에 있습니다. 경제학 학위를 갖고 있고, 기자, 언론인, 회사원,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대학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찾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귀의(歸依)'라는 말이 어떤 방향으로 향한다는 뜻이라면 저는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의 행복은 방향감각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 또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저는 돈, 재능 등 모든 면에서 인생의 성취를 갈망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룬 모든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질투, 경쟁, 증오 등을 말할 때면 삶의 공허함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과정에서도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가정, 우리 부모님의 가정은 모든 중국 가정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사회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유교 문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다지 밝지 않은 유교 문화이며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애증이 있고, 제 가정은 그다지 화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사는 사회, 중국 사회는 고난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제 가정 형

편은 나쁘지 않았고 배고픈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처럼 어렸을 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먹게 되면 토할 때까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있는 사회, 하층 서민들, 혹은 조금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층 서민들은 물질적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신, 존엄성에 대한 추구를 상실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 씻겨주는 일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나마 벌기 위해, 그들은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직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업조차 없다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존의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삶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의기양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저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영혼 일부분이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아침하고 알랑거릴 때, 그들의 영혼도 그들을 꾸짖습니다.

제가 느낀 고통은 기독교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비롯되었고,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자신을 참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제 방에 그림을 걸어 놓은 적이 있는데,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죠.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후에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삶의 환경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참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회하는 '아름다움'은 이 모든 것과 다릅니다.

이 '아름다움'은 사람이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에너지를 해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좋아했던 작가 시몬 베유(Simone Weil)가 있었습니다. 현재 파리 고등사범학교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있습니다. 베유가 대학에 다닐 때 그녀는 프랑스에서 붉은 마르크스의 정녀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기에 매우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촌마을에 와서 어민들이 밤에 하루 종일 노동을 한 뒤 바닷가에 손을 잡고 서서 달빛 아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구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성이 우리의 운명이자 사명이라면, 현대성 아래에서 노동자의 노동과 소외된 노동은 일종의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적이고, 지루하고, 심지어 위험천만한 석탄 캐는 일에서 사람들을 해방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의 가장 좋은 해방은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인간성의 모든 빛을 되찾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이 아카데미상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했는데, 이 영화를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 위고가 평생 추구한 주제이기도 한 현실 혁명에 대한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위고는 <레미제라블>과 <93년>을 쓸 당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는데, 현실 혁명은 합리적이지만 종종 과도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수 있는, 우리 세상에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어쩌면 인간적인 구원에서, 정신적인 혁명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쉬지린 교수님이 말씀하신 책임,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의 책임을 추구할 때, 모든

사람의 영혼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정신의 혁명, 내적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많은 폭력, 유혈, 희생이 필요 없이, 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지런 :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직면하게 되면 이성은 항상 창백해집니다. 예전에 심천(深圳)의 한 신문에서 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나는 점점 이성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읽고 나서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방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제가 한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감정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가장 이성적이지만, 유교에도 그 나름의 사연과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천원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다른 면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천원 : 방금 두 분 다 그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청칭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기억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기독교나 불교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경험은 단 한 가지 확실한 증거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힘을 구한다면, 사실상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모를 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일 당신이 있을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직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저는 무한을 추구하지도 않고 불멸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유한한 현재에 만족하고, 단지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해 잘 하려고 할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선생님에 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그는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좋아져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배운 것은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그가 하는 학문은 사람의 가치가 스며들어야 좋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에 이르러서야 파란 하늘, 흰 구름,

풀밭이 좋고,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 사람의 가치를 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도 타고르 국제대학교, 스리 오로빈도 아카데미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쉬판청(徐梵澄)의 이야기입니다. 간디, 타고르와 함께 ‘인도의 3대 성인’으로 불리는 오로빈도는 인도 독립해방운동의 지도자였지만 이후 인도 남부 해변의 한 도시에 은거하며 마지막 40년을 그곳에서 보냈고, 40년 동안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2층에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쉬판청은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중국으로 돌아왔고, 죽을 때 ‘유교는 정말 좋다’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유교에서 죽음은 두렵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는 생명체가 반드시 직면하고 냉정하게 맞서야 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죽음이 오는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쉬판청 본인의 죽음은 유교에서 말하는 ‘무질이종(无疾而终-병없이죽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신의 기질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질병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정신이 건강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등, 모든 신체 건강 문제의 약 90%는 심리 및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과 심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기질적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즉, 기질의 결함은 유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교는 우리에게 ‘존오순사(存吾順事), 물오녕야(沒吾寧也)’라고 알려줍니다. 즉,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살고, 죽을 때는 조용하고 여유롭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기질적 결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죽음은 단지 신체 기능의 자연적인 노화일 뿐이지 제 자신이 저에게 가져온 각종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쉬판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유교에서 말하는 ‘전이생지, 전이귀지(全而生之,全而歸之)’입니다. 하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돌보고 키워야 합니다. 하늘이 이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에 감히 훼손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의 성인식과 많은 다른 민족의 성인식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성인식에서는 여자아이에게 입술접시를 만들어주고 입술에 접시를 끼워 넣

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못생기게 만들어서 다른 부족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부족은 어떤 여자아이가 입술이 크면 클수록 더 예뻐지고, 그런 여자아이가 결혼한 남자도 더 큰 지위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형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정신의 승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많은 민족 중에는 성인식에서 할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할례는 자신의 생식기를 수술하거나 피를 보고 자신의 몸 일부분을 손상시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후에 당신이 성장한 후,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몸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유교의 성인식에서는 자신의 몸에 조금의 상처도 내는 일이 없고, 오히려 경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신체를 꾸미는 것은 예의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교에서는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지만, 어머니가 떠나실 때 굉장히 평안하셨습니다. 또 어머니의 일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했지만, 죽음 자체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아주 평온하게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는 아마 유교 문화의 숨겨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죽음을 다른 무언가에 맡긴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떤 위안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게 된 겁니다.

####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경쟁

쉬지린 : 세 분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고, 그들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깊고 각자가 믿는 도리가 있었습니다. 청칭 교수님 말을 따르면 인생은 꿈과 같고 집착하는 것이 없기에 결국엔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류원진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완전무결한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원 선생님의 유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유교, 기독교, 불교는 각자의 법도를 가지고 진정한 자아,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더 흥미로운 문제인데 서로가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여러분은 공유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습니까?

류원진 : 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소비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에서 소비자로 정의됩니다. 심지어 사상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이 강좌의 미디어 지원은 팽배(澎湃)의 '사상시장'채널입니다. 저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시장, 사상이 시장이 되다니. 사상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강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허 선생님의 취지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강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판매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쉬지린 교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유교, 기독교, 불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지만, 이 사회의 소비화, 허무주의의 추세에 맞춰,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팔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매우 무섭고 허무화된 흐름에 맞서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칭 : 천원 교수님과 1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화동사범대에 처음 왔을 때, 교수님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감정표현을 매우 자제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천원 교수님께서 말한 이 문제가 바로 제가 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질이종(无疾而终)의 정황과, 선시선종(善始善终)을 포함한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몸은 마라톤을 뛸 수 있지만, 문을 나서면 차에 치여 죽을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제 기질적인 문제인가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시간에 나



갔으면 안되는 것이었나요?

몸을 잘 기르는 것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때, 개인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할 때, 사실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연한 인연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선종(善終)을 좋은 죽음의 결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죽음이 이런 방식으로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연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저는 유교, 기독교, 불교 이 세 종교가 실제로는 시장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진정한 필요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물주의를 믿는다면, 유물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교의 관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교, 유교,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많은 자원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고,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창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일적이고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교, 기독교, 불교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는 실제 인물이 나타나고 그의 인생관과 경험이 나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은 다음 내가 직접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 서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

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선택과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행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천원 : 사실 방금 청칭 교수님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 또한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진정 죽음인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의외성, 우연성, 통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출발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운명이나 천국처럼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도 자신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것은, 실제로 유교에서 도출된 평생의 수행인데, 평생의 수행 없이 어떻게 무질이종(无疾而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교에는 ‘군자경기재기자, 이불모기재천자(君子敬其在己者, 而不慕其在天者)-군자는 자기가 갖추고 있는 바른 도를 경건하게 보존하되,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을 흠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천명이라 부르고, 우리는 천명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갖춘 것을 경건하게 다룬다면,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저 또한 알지 못합니다.

이는 의미와 관련된 문제인데, 매 순간 모든 일을 후회 없이 실천한다면, 매 순간 만족하고 충실하기에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이유는 제한된 현재가 당신에게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삶을 마주하는 방식은 바로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아주 침착하게 대하고 싶지만, 죽음은 죽기 직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쌓은 업보,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즐거워하고, 자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고통을 만나더라도, 이 점만을 생각한다면, 제 마음은 여전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 예수, 공자가 죽을 때, 무엇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선택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매우 슬픈 희생이죠. 하지만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程顥)는 ‘사람들은 의식주 생활이 나아질수록 좋아하지만, 이때 자신의 몸과 마음은 오히려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다. 자신의 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름답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죽음은 일종의 열반이고 그의 삶의 목표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끝없는 고통의 바다이고 죽음은 진정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임종을 앞두고 노래를 부르며, “태산이 썩었느냐, 들보가 부러졌느냐, 철학자가 시들었느냐!” 노래를 마치고 공자는 죽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이는 후세의 수행방법에 있어, 매우 높은 경지의 조예이며,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웃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혜강(嵇康)이 죽을 때 <광릉산(廣陵散)>을 연주하듯이 조용하고 여유롭게 말이죠. 중국에 시사여귀(視死如歸)라는 말이 있는데, 죽음은 고향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돌고 돌아 이 대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회귀입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쉬지린 : 오늘 무대에 앉아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마치 가전제품 매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는 유명 브랜드의 TV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 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같습니다. 동일한 세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나 매매 방식이 아닌 표현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떠한 경쟁성이 있지만, 경쟁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며, 청칭 교수님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

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핵심은 자신의 인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은 백화제방(百花齊放)의 큰 화원 같지 않나요?

저는 줄곧 하버드대학 중국사상사 연구의 권위자인 슈워츠 교수를 존경해 왔습니다. 그는 비교종교학, 비교철학을 연구하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상과 서양 사상을 논할 때 늘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슈워츠 교수는 중국과 서양의 유사점을 탐구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국과 서양 문명은 모두 카를 야스퍼스가 말한 추축 문명이며, 이러한 추축 문명과 종교는 실제로 인류의 보편적인 곤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실의 곤경이자 마음의 곤경이며,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동일하고 그들의 배려도 동일합니다. 다만 각자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날 유교, 기독교, 불교 세 종교가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공통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첫걸음이자 외연이고,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후에 기회가 된다면 고통, 죽음, 두려움, 게으름, 좌절 등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유교, 기독교, 불교가 어떠한 지혜로 다룰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시작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군자는 조화하되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이자 교수님이신 세 분에게 감사드리며, 학생 여러분의 참여에도 감사드립니다!

현대인은 어떻게 죽음에 직면하는가?

장원장(张文江), 황젠보(黄剑波), 청칭(成庆), 쉬지린(许纪霖)

쌍11(双11)의 미친듯한 쇼핑,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은 여전히 현대인들 내면의 정신적 공허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 살아가야 합니까? 생명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마음속 고민은 평범하기를 거부하고, 방황하기를 꺼리는 도시의 많은 젊은 세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5기 텐센트 플랫폼·상해문화담화는 동제대 인문대학의 장원장(张文江) 교수, 화동사범대 인류학연구소의 황젠보(黄剑波) 교수, 상해대 역사학과 청칭(成庆) 박사, 화동사범대 역사학과 쉬지린(许纪霖) 교수를 초청하여 각각 유교, 기독교, 불교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젊은 청중들이 다원적인 문명과 종교의 대화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자신에게 맞는 진리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쉬지린 : 오늘날 중국, 특히 상해는 물질적인 생활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해의 많은 부자들은 "나는 지금 가난해서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며 한탄합니다. 당신이 현실에서 아무리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젊지만, 가족, 친구, 동료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직면하고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겨울날, 우리는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외인 점은 중장년층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오셨다는 건데요, 이는 누구든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은 본래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주로 '삶'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숙명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분명히 생각해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감성적인 화제에서 시작하여, 세 분 교수님에게 자신이 겪은 죽음과 관련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장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장 : 주말도 반납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지에서 급하게 오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대화가 잘 안 될까 봐 조금 망설였습니다. 생사는 지극히 엄중한 일로서 가장 진실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가족들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좋은 가정은 가능한 한 이 주제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죽음을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가족이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기준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특히 건강할 때 이 화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해내더라도,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한번 말을 꺼내면 피상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시인 실레의 “영혼이 말할 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영혼이 아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내용이 표현되었을 때, 그 내용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유익하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자신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공개적이고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피안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생각해 본 후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당신의 진정한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실생활을 인도할 것이며, 그것은 도덕성, 세계관, 심지어 삶의 행복까지 포함됩니다.

학문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저는 고전을 연구합니다. 중국인들이 생사를 인식하는 태도는 유교, 도교, 불교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사에 대한 유교적 태도는 ‘삶을 모르면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공자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딱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면 어떻게 삶을 알겠는가’라고 말이죠. 물론 이것은 불교의 본래 말이 아니고, 더 확실한 정의는 조금 후에 청칭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도교는 장자의 말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은 한 갈래이다.’ 이 말은 <덕충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갈래’에 대한 해석은 분명하지 않고, <대종사> 등 다른 글에 따르면, ‘한 갈래’라는 것은 일체이며,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의 경험과 결합된 중국 3대 종교의 기본 태도입니다.

황젠보 : 쉬지린 교수님은 이것이 심각한 주제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장원장 교수님이 이것은 심각하고도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방금 쉬지린 교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와 견해를 이야기해야지, 바로 이론적인 토론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아니고 생명과 삶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죽은 적이 없고, 죽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미래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말할 때, 일종의 상상 속의 경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한 몇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것은 큰일입니다, 가족의 죽음, 특히 당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집안의 장남이자 장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신을 만지고, 옷을 입혀주고, 사후처리를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엄숙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연구를 포함해 이후에 제가 생각한 모든 생각은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최근의 일로 2011년쯤에 친구 세 명과 충칭에서 운남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현지 공안당국으로부터 그날 밤 동시에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산속의 고속도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도 충격이 비교적 큼니다. 제가 아직 젊고 원기 왕성하다고 느낄 때, 심지어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낄 때, 필사적으로 분투하고 있을 때, 이런 일 하나가 한순간에 당신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몇 년 동안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저는 첫째,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죽음은 당신이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마주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칭 : 먼저 핵심개념을 말씀드리면, 불교가 생사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



다면 '생사일여(生死一如)'라는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말하자면 불교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 생사를 여러 번 반복 했기에, 평생을 살아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생사를 거듭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불교의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수많은 생사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일부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죽음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너무나 많은 죽음을 본 적이 있어, 가끔씩 제가 정말 저승사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 이웃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내 중학교 짝꿍도 교통사고로 왕생(往生)했으며, 대학 시절 같은 방을 썼던 12명 중 그나마 가까이 지냈던 친구 두 명이 잇따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인이 되어서야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정말 끔찍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들은 결국 70~80세까지 살 수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3층 옆 반의 한 어린이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래층의 핏자국만 보았고, 어른들이 학생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게 무슨 뜻이지? 죽음은 소멸을 의미한다는데, 소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것이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일까. 그래서 저도 항상 새로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과거에 태어나지 않고, 미래에 태어나지 않고, 하필이면 지금 현재에 태어난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면 죽음은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하셨죠. 제 생각 속에 있는 중풍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을 뜻하는데, 반신불수 뭐 이런 것들이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차근차근 챙기고 계셨고, 본인이 죽은 후의 일들까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몸도 나름 건강하셨고, 저를 만났을 때 기분도 굉장히 좋아 보이셨어요. 간호하는 동안, 한밤중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는데, 남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시다. 아버지의 손과 발은 때때로 저보다 빨랐습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상태가 나쁜 것은 아버지의 몸 상태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입시다.

그때부터 저는 죽음은 인지, 인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시다. 서두를 너무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 방면에 대한 경험이 아직 많이 있긴 하지만,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시다. 더 많은 죽음을 보아야, 불교가 왜 죽음을 탐구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시다.

쉬지런 : 저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죽음에 관한 최초의 그리고 최근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시다.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뜻밖에도 죽음과 관련이 있습시다. 그때 저는 겨우 한 살이였고, 저희 고모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저와 누나를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가 영결식에 참석했습시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데, 저는 걸상에서 누나와 함께 가족들이 죽은 사람 곁에 슬프게 둘러앉아 있는 것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시다. 어린아이의 첫 기억이 다른 것도 아닌 죽음과 관련된 영결식이라니, 죽음이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알 수 있습시다.

죽음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억은 2014년 12월 31일 밤, 상해의 와이탄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인해 3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시다. 그중 한 명은 제가 강의를 하던 화동사범대 역사학과 학생이였습시다. 비록 제가 그 학생을 직접 가르친 적은 없지만, 이 사건이 저에게 준 충격은 너무나 컸고, 며칠 동안 저는 줄곧

말할 수 없는 억압감을 느꼈으며, 그 학생의 친구들 앞에서 수업할 때면 그들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영결식에 갔는데,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슬퍼하셨지만, 영결식 전체를 딸을 위한 결혼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부처럼 아름다웠고, 모두가 그녀를 하늘나라로 배웅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분홍색 작은 꽃이 달려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상해 사람들이 치르는 결혼식처럼 그녀의 출생부터 성장까지의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지만, 이번에 산 것은 편도 승차권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젊고 생기 가득한 생명이 어제도 당신 곁에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스승이 먼저 가야 하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가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건 발생 후, 그녀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학교는 바로 심리 상담 선생님을 두게 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심리학의 과학적 방법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심리학이라는 과학은 증상만 치료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고급 종교와 문명으로부터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장원장 : 제가 방금 말한 관점은, 아직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그로 인한 감정적인 충격, 심지어 심각한 충격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 충격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간주하며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선조 중 일부는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않고 계속 깊숙이 들어가 죽음을 직면하고 탐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예, 우리들의 실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금 쉬지린 교수님이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리학의 개입은 효과가 별로 없고,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결코 보잘것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의 뺨속 깊이 나오는 것이며, 당신이 평소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때에도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이고, 평소에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실제 일어나는 두려움을 불교의 말로 설명하자면, 그 근원은 '업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선진 이론 중 일부가 제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역경>, <논어>, <장자>에서는 '생사'를 '사생'으로 표현했고, 이후 <순자>때가 돼서야 비로소 생사(生死)가 등장했습니다. <노자>, <맹자>에는 이런 병렬구절이 없었는데, 불교가 유행하면서 '생사'라는 용법이 많아졌습니다. <역경>, <논어>, <장자>에서 반복되는 것은 '사생'입니다. 삶은 죽음 뒤에 오고, 삶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으로 살아 가야 삶이 경박하지 않고 질적으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현대 서양철학에서는 하이데거의 소위 '먼저 죽음 속으로 가본다'라는 말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황젠보 : 죽음 문제를 논할 때 먼저 고급 종교의 죽음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방금 쉬지린 교수님께서 하신 표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인류학을 전공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은 인류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인류학의 종교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급 종교와 저급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립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만의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인류학의 전반적인 견해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죽음의 문제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도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청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교의 표현으로는 매일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머리카락이 빠지고 세포가 죽고 재생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때때로 죽음이라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죽음이 더 긴 과정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둘째, 제가 보기에 죽음은 개인과 집단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죽음에 대해 토론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란, 홀로 죽거나, 빨리 죽거나, 이미 죽었거나입니다.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감정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걸 판단하나요? 가장 쉽게 말해서 숨이 끊어진 겁니다. 이것은 호흡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심정지, 뇌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이것이 여전히 생리학적, 기능적 측면에서 논의된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 더 높은 차원에서는 종교와 인문학도 포함되어야 하며, 죽음에 대해 논의할 때 개인적이고 생리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며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마치 방금 청칭 교수가 자기 집 이야기를 할 때 설정이 있는 것처럼요. 방금 쉬지린 교수가 말씀하신 예를 포함해서, 젊은 학생이 죽으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특정한 이념에 따라 의식을 치러 줄 것입니다, 이 의식도 토론해야 할 죽음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의례적인 선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해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면, 저는 기독교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와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말하자면, 기독교가 죽음에 대해 말할 때 신체적,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차원의 죽음, 더 핵심적인 개념은 단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신체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차원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의 죽음으로 아담, 이브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 당시 아담과 이브는 직접적인 육체적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살았고, 물론 결국 죽었습니다만.

영혼의 죽음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한 사람의 영혼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나타내므로, 단절이야말로 기독교가 죽음을 이해하는 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기독교인이 되면 육체의 죽음이 일시적인 것이거나 쉽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지만, 그것은 짧은 분리이고, 신자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 안식하고 기다린 후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선언인 <사도신경>에는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죽음을 말할 때 현재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고생을 그만두었다’라는 대련을 쓰거나 시를 부릅니다. ‘고생을 그만두었다’는 세상의 노고가 이제 잠들었으니,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인데, <성경>에 여러 번 쓰인 말로 신자의 죽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신자는 죽었지만 잠든 채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청칭 : 부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처는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논리적이어서,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음 또한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교가 처음부터 생사의 양단이라는 이원적 관점에서 죽음의 답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생명이 끝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신체 세포는 매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당신의 생리 조직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심지어 당신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불교에 있어서 생사이자 윤회입니다. 다만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몸이 모두 망가져 죽음이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처는 죽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생사를 설명하는 것은 곧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생사는 제가 볼 수도, 체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즉 우리가 생사의 고비라고 생각하는 때에야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의 삶이 끝난 후에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태어나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것, 바로 <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不生不灭)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사람의 관념이 죽음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호북성의 서남 쪽에 있는데, 한 친척이 농촌에서 돌아가셨는데, 병 없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들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온 가족이 매우 즐거웠고,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관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고, 도가가 말하는 ‘고분이가(鼓盆而歌)’와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울까요? 묻으려 할 때 관을 열고 허세를 부리며 울다가 묻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죽음에 직면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포함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이 죽음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이 일에 대한 두려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올바른 관념(지혜)이 있으면 당신은 생사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無明)이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쉬지린 : 사람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지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막상 때가 되면 돌은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까? 죽음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과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관념적인 측면에서 초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방금 몇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 하나는 부분적인 육체적 죽음인 마비를 포함한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뇌는 죽었는데 몸은 살아 있는 상태이고, 세 번째 유형은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서 모든 생각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시인 장커지야(臧克家)는 유명한 시 <어떤 사람>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삶과 죽음은 상대적인데 예를 들어 후야오방(胡耀邦)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이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나 마음이 이미 죽어 재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황젠보 : 몇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죽음 자체를 초월하거나 두려움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례식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행복은 그보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편히 쉬며 더 아름다운 고향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더 말씀드리자면, 쉬지린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실 두려움 자체가 미지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항상 두려운 그 사물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생각,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나 종교의 이러한 견해와 이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다른 유형의 두려움이든 우리가 더 잘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칭 : 방금 쉬지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제가 동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쉬교수님은 사람은 사후가 어떤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음은 나락이고 어둠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죽음은 관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시겠지요? 의학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의 과학자이자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인 라마르 박사는 수년 전에 심장병 환자를 구조했는데, 심근경색과 유사한 질병으로 심장이 멈췄지만 구조 후 마침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매우 낙담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조했으니, 당신은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나요? 환자는 구조 과정 중 경험한 세계는 실제로 매우 즐거웠고, 빛과 마음의 평화 등 즐거운 광경을 많이 경험했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후 유럽의 주요 병원에서 비슷한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경험으로 인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망경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를 들어, 심장박동이 멈췄던 환자가 나중에 깨어나더니 그를 구하기 위해 병동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어떤 간호사가 현장에 물건을 떨어뜨렸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하고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 책을 썼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을 증명했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완전히 결론 내리는 것도 역시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교에도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 <서장생사서(西藏生死書)>, <서장도망경(西藏度亡經)> 등 최근 베스트셀러를 읽어

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모두 이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깊이 들어가 죽음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이 점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원장 : <빈사 체험>이라는 책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주변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는데, 묘사한 과정은 책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기록은 가짜가 아니고 거의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빛이 보이고 터널이 보이고 죽은 가족이 와서 맞이하는 등등.

저는 이것에 대해 여전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쉬지린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빈사체험이라는 겁니다. 즉, 아직도 저쪽으로 가지 않았고, 여전히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임사체험이지만 결국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거기에 있는 정보도 거기에 달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있나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론이나 개념에서 출발하지 말고 구체적인 느낌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집에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처럼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몸동작 하나하나에도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고요.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숨결도 없어지고, 이 느낌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방금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불교와 도교의 수련방법은 신화와 전설에 가까운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교의 선비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들의 임종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사기·공자세가>에는 공자가 임종할 때 담담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양명은 임종 때 "이 마음이 밝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양심에 바

쳤고, 이때 그의 마음은 큰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진헌장(陳獻章)인데, 그가 갈 때 머리 위에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하루종일 지속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요산당외기>. 증국번(曾國藩)은 의자에 앉은 채로 가셨습니다. 그가 만년에 정원을 거닐다가 발이 저린다고 해서, 아들이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더니 잠시 후에 가버렸습니다. 유가는 ‘未知生 焉知死(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를 강조하고, 장재(張載)는 <서명(西銘)>에서 ‘살아서는 삶에 충실하고, 죽어서는 편안하게 있으리라(存吾順事, 沒吾寧也)’라고 했습니다. 유가는 죽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지만, 그들은 수양을 쌓고, 생사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지만,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쉬지린 : 2001년 하버드대 초빙학자로 있다가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를 방문했는데, 당시 프리드먼 교수님이 저를 접대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중국 정치학 대가입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우리 대학에서 프랑스어 학과 노교수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라고 물었고 저는 같이 갔습니다. 장례식은 적막한 묘지에서 치러졌고, 딸은 붉은 옷을 입고 장례식에서 어머니인 프랑스 노교수가 생전에 번역한 프랑스어 시를 큰 소리로 낭독하며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장자가 말한 ‘고분이가’와 비슷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친구는 그의 집에 가서 애도했지만, 장자가 앉아서 깨진 세숫대야를 두드리며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화가 나서 안 울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기뻐해요, 너무나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장자는 “내 아내의 죽음은 그녀의 삶과 마찬가지로 순리에 순응하고, 인생의 생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서로 바꾸어 가면서 반복되는데 슬퍼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중국의 도가는 생사에 대해 매우 태연하고 자연에 부합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황젠보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황젠보 : 기독교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에 많은 종파, 유파가 있는데, 큰

것은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 내부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에 따르면 기독교는 죽음을 다룰 때 육체의 죽음은 심포일 뿐 마침표가 아니며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신자들에게 육체적 죽음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힘들게 세상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금 쉬지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에서의 경험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그다지 슬프거나 두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오늘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은 사실 대부분 문화적으로 알려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 사건이나 이 시점에서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과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제가 그때 예를 하나 들었는데, 쉬지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 중국인들은 보통 자기 집을 무덤 근처에 안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가족의 무덤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타인의 무덤이 숙소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이 매우 무섭고, 음산하고, 비교적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미국과 유럽 같은 기독교 전통 아래에 있는 무덤은 정원처럼 잘 가꾸어 졌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학교를 방문했을 때, 현지 선생님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그가 약속한 곳이 묘지인데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그곳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닐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엄마가 아기 유모차를 끌고 묘지를 돌아다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아이가 음기가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아이가 밤에 불편하거나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려면 죽음의 개별성 외에도 죽음의 집단적 성격도 보아야 합니다. 집단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이 차원을 투입한다면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논의한 내용은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는 기독교, 불교, 유교의 방법인데, 어느 방법이든 모두 개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개인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우리의 문화에는 집단에 의지하여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는 매우 복잡한 장례의식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의례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기능적 설명은 상대적으로 피상적입니다. 실제로 이 의례의 과정 속에서 죽은 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산 자는 죽음으로 인한 사회관계의 파괴와 구조의 변화 속에서 재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파괴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죽은 자를 안정시키고 산 자의 재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장례식은 반드시 슬프고 애통하며 눈물을 많이 흘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중국의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적어도 제가 익숙한 충칭의 경우, 거기의 장례식에는 두 가지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째, 슬픔과 눈물과 많은 의식이 있지만, 이 슬픈 의식의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마작을 합니다, 둘째,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손님이 많을수록, 잔치가 길어질수록 이 가족은 장례식을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체면과 허세를 위한 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저속하거나 나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단 차원과 의식 차원에서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린 : 장례식부터 묘지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 귀신들은 아직도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2일은 동지로, 중국인들에게는 청명절 이외에 가장 중요한 제사이자 성묘의 날입니다. 중국인들은 묘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장례식장,

묘지 옆에 있는 아파트값은 보통 싸지만, 서양에서는 거꾸로 묘지 주변의 집값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산책하려고 합니다. 묘지 자체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파리의 라세즈 묘지, 몽파르나스 묘지, 워싱턴의 알링턴 묘지에 가봤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모스크바 교외의 노보데비치 묘지였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수많은 정치인, 작가, 예술가들이 묻혔고, 거의 모든 묘비들이 묘주의 개성에 맞는 걸작들이었습니다. 멀리 떠난 영혼은 죽지 않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여전히 뒤엉켜 있습니다.

청칭 : 방금 황젠보 교수님은 이 문제를 문화적인 이슈로 보거나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화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불교에도 호스피스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호스피스란 무엇일까요? 조념(助念)입니다. 조념은 죽은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덜 외롭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나 학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장원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임종의 생각이 번뇌심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의 다음 생은 윤회로 ‘악도(惡道)’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호스피스를 우리가 함께 차분하게 죽음을 마주하고 산 자, 빈사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진실한 이익을 위해 이 조념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술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를 도와 염불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가 몸과 마음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의식 속에서 내가 염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불교를 볼 때, 인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가능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즉, 내가 너를 도와 염불하여 당신이 죽은 후 좋은 윤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모두 헛소리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문화적 의미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원장 : 천장 근처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몸을 보는 것과 같은 '빈사 체험'에 대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빈사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선정(禪定)'에 들어갈 때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환각인지 아닌지는 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선진문화는 줄곧 '생사', 죽음으로부터의 삶을 강조하여 역방향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역-설괘>에는 “과거를 세는 사람은 순향으로 가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을 아는 사람은 역향으로 가는 것이니, <역>은 거꾸로 세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칭 교수님이 임종 마지막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번뇌가 생기면 내세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토종은 임종십념을 명확하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 있다면, 정토에서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십념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몸의 두려움, 평생의 '업력'이 들끓는데,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람은 건강할 때도 자신의 십념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임종할 때 말입니다.

<증일아함경>은 '십념'의 방법을 소개한 바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도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토 사상과도 상통합니다. 즉, 평상시에도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염휴식, 염신(念身, 몸을 생각하고), 염안반(念安般, 호흡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죽음의 무상함을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철학은 죽음을 대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염사(念死)는 망념(妄念)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염사(念死)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광 스님은 '다만 죽음이라는 글자를 이마에 붙이고 눈썹에 달아 정진을 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죽는다

쉬지린 : 생사 문제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이해는 도교에 가깝습니다. 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나뭇잎처럼 나무 위에서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찬바람에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흙이 되어 영양분이 되고 이듬해 봄에 재생되고 생사하는 모든 것이 자연의 조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청칭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칭 :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지만, 윤회에서 당신의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번역하면 진리를 의미합니다. 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 윤회도 매우 좋은 것이고, 찬양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처는 지금 당신이 힘들든 행복하든 간에, 삶의 순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핵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매년 돌아오는 당신의 삶에 고(괴로움)의 모습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괴롭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의 지금 생활이 매우 편안하니까.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괴롭지 않나요?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을까 봐 두렵지 않나요?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난 생애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존재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당신이 지난 생의 고통을 회상할 때 비로소 이번 생의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회는 사실 재미도 없고, 쉬지린 교수님이 묘사한 것처럼 시적이지도 않으며, 실은 고난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당신의 생명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신은 충분히 즐기셨나요? 당신이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면, 자연처럼 끊임없이 순환하세요, 그러나 불교는 윤회를 초월하고 싶어 합니다. 불교에는 초월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과 화해합니까? 불교에서는 회향(回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회를 하거나 독경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공덕을 행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그 공덕이 망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상호 이익 관계를 맺습니다. 그 연결 고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는 당연히 교리로 이 관계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어딘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관계를 맺으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지혜와 자비심을 드러내고 일을 하면 마음의 힘이 감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감응을 말하는 것은 자기장의 감응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결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지런 : 재작년 춘절 때 일본 도쿄대 초빙교수로 근무했는데, 제가 살던 기숙사 옆에 작은 신사가 몇 군데 있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걸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작은 신사였는데 아주 재미있어 보여서 사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날 밤에 열이 났는데 어르신들이 늘 묘지의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방해하고 유령과 신을 불쾌하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다소 동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황젠보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유령과 신의 개념이 있습니까?

황젠보 : 기독교 신학은 매우 복잡한 체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일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적어도 초기 기독교, 특히 유럽에서 일어난 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본 공식적인 정통 기독교 신학 외에도 실제로 많은 민간 전통이 통합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전통 중 귀신과 영혼에 대한 서양과 중국의 생각은 매우 유사하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성경에는 구약시대에도 볼 수 있듯이 교귀(交鬼)라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의 기적, 귀신을 쫓는 일 등 기적과 기이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일신교라고 하지만 귀신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문제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내에서

사람이 죽은 후, 특히 신자가 죽은 후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죽음이 제가 방금 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의미로 편안히 자고 낙원에서 편안히 자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 몸은 완전히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중 하나의 이해이며, 말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상당히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되기 쉬울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고, 제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는 '고혼야귀(孤魂野鬼-의지할 곳 없이 외롭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귀신)'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조상은 당신한테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나를 보호해 주고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문으로 돌아가서 장 선생님께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죽음도 일종의 침표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두려움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완전히 제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혼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면 그 두려움은 바람직하거나 심지어 장려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사를 살펴보면 키에르케고르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사후의 관점도 포함하고, 살아있는 시간과 우리 육체적 죽음 이후의 시간은 사실 사람이 일생에 걸쳐 회복하려고 시도해야 할 네 가지 차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쉬

지린 교수님의 '화해'라는 말을 다시 차용했습니다. 즉, 사람과 자신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쉬지린 : 고희야귀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난달에 대만을 방문했는데, 타이중 부근에 루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대만의 3대 고대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워다유는 '루강 타운'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와 함께 간 사람은 동해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대만의 민속 문화를 연구한 퇴임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길가에 있는 여러 절을 방문했는데, 모두 과거의 고희야귀(무연고 사망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복건성 남부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고희야귀들의 영혼을 안정시킬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힐까 봐, 특별히 절을 세워 그들을 제사 지내고 그들의 영혼을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는 귀신에 대해 일종의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경원하고 제사 지낼 때는 마치 신(조상)이 계신 것처럼 하라고 가르칩니다. 장원장 교수님은 유교에 대한 연구에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사람과 귀신을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장 : 유교, 특히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은 이른바 '음양, 이기(二氣)가 변화하여 나온 것'(장재 '정몽·태화')입니다. 공자는 '귀신을 공경하고 멀리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자의 이런 태도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은 사람 몫의 일을 잘 처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선진의 공자, 노자, 장자는 귀신에 대해 비교적 이성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망언을 하거나 귀신에 접근하면 부정적인 에너지의 방해 받을 수 있기에 경원하라고 합니다. 공자는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귀신을 공경하여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토론에서 도교는 매우 소탈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반인이 쉽지 않은 것처럼 삼교 또한 쉽지 않고 그 안에 구체적인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칭교수님은 고생을 이야기하는데, 생활 속에서 고통을 느껴야 불교에 조금 다가갔다고 할 수

있지, 개론에서 나온 어휘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황젠보 교수님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느낌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의 더 깊은 함축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이는 모든 교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령은 늙은 나이에 경전을 읽다가 실제로 본 적이 있고 비로소 성령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가의 소탈함은 여전히 이러한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감정에 대한 화해나 화해의 결과로서 비로소 소탈함이 나타납니다. 물론 장자는 고분이가(鼓盆而歌)하면서 득도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장자의 모습일까요? '덕충부', '대종사' 등을 읽어야 장자가 인생의 참혹한 면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화해하거나 화해하지 않고 멍치도록 내버려 두면, 원망의 누적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의 사건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쉬지린 : 저는 일찍이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장강입니다, 그는 중국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상하이의 우주부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골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화동사범대학에 와서 처음에는 사회학과 석사 과정을 밟았고, 나중에는 끊임없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박사과정을 밟으려고요, 저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박사학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약간의 지식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문학적 지식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배움으로써 이겨내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죽음은 머리에 걸려 있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다모클레스의 검입니다.

불행히도 6년 후, 그의 암은 재발했고 발견되었을 때 이미 전신에 전이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에게 <성경>이나 불교 도서와 같은 종교적인 책을 좀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유교가 궁극적인 생사 문제에 있어서 불교나 기독교에 비하면 아직 얕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자유주의 대가인 인하이광선생은 암에 걸려 결국 부인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장강은 임종을 앞두고 불교를 받아들이지도, 기독교에 개종하지도 않은, 중국식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죽음을 태연하게 맞셨습니다. 그는 많은 글을 썼고, 인

터넷에 널리 퍼졌고, 죽음에 대해 매우 초연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의자와 같으니, 당신은 넘어지지 않고 여기에 앉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의자를 찾았고, 제 안식을 지탱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 마음은 힘이 넘칩니다. 소위 부양(엎드려 세상을 굽어보고, 우러러 하늘을 쳐다봄)하여 부끄럽지 않은 호연정기입니다. ‘천행건(天行健), 군자는 자강불식(自強不息)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겠습니다. ‘하늘에 죄를 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저는 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것은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고, 인격화된 하느님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저는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이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우 오만하고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다시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언젠가 내 육체가 당신을 떠난다면,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향해 미소 지을 때, 저도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쁘지 않을 때, 당신은 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당신을 영원히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격려할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당신도 죽으면,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장강에게서 저는 중국인들이 자신의 생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월적인 하느님과 보살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종의 도교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태연함과 유교로 지금의 여유를 중시하며, 여전히 두려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강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유를 보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은 자아

를 너무 중시하지 않고 항상 남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가 그를 보러 갔는데 우연히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어떤 이상을 발견해서 의사가 재검사를 하겠다고 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사모님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순간, 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죽는 날이 멀지 않은 젊은이가, 마음속으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니! 그는 죽을 때까지 미취학 아동 몇 명을 지원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죽음을 이기는 한 방법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장강이 떠난 후, 저는 그의 생사관에 대해 토론하는 글을 썼는데, 제목은 <웃으며 죽음을 마주하기: 한 젊은이의 생사관>입니다.

황젠보 :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약간 영혼을 위한 수프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그것이 영혼을 위한 수프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각자가 직면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특히 쉬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소속된 연구소의 원장이 최근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 그는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방문할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심지어 품위조차 없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엄하게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강 학생의 사례가 매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첫째, 죽음이 어차피 올 것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낫고, 둘째, 잘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에는 굉장히 좋은 예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가톨릭 신자로서 힌두교 사람들을 접촉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녀 자신도 많은 고된 일, 더러운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설정입니다. 다른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 죽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호스피스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타인을 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돕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여주십시오.

기독교로 돌아가면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사실 사람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궁극을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혹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자신을 향해 잘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잘 살고, 영원을 향해 더 나은 궁극을 향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장원장 : 저는 마지막으로 두 단락의 글을 해석하여 끝을 맺겠습니다. 한 단락은 <노자>의 50장으로, 원문은 생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간다, 삶으로 가는 무리가 열에 셋이고, 죽음으로 가는 무리가 열에 셋이며, 사람이 살다가 사지(死地)로 옮겨가는 것이 또한 열에 셋이다. 어찌하여 그런 것일까? 살고 또 살려고 하는 마음이 두텁기 때문이다. 듣건대 섭생(攝生)을 잘 하는 사람은 물을 돌아다녀도 외뿔소나 호랑이에 맞서지 않고, 군대(軍隊)에 들어가도 갑옷과 병기를 갖추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뿔소는 그 뿔로 들이받을 데가 없고, 호랑이는 그 발톱으로 할컬 데가 없으며, 병사는 그 칼날을 쓸 데가 없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런 것일까? 섭생을 잘하는 자에게는 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3/10은 삶의 차원, 3/10은 죽음의 차원, 3/10은 삶에서 죽음으로 이동하는 차원입니다. 왜 삶에서 죽음으로 가나요? 삶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물질적 욕망을 끝없이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10분의 3을 차지하는 평범한 삶이므로 총 9개가 되는데, 그럼 남은 한 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원문에는 아무 설명이 없고, 단지 전설적인 ‘섭생(攝生)’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만 묘사했는데 완전히 마법 같은 장면이었고 모든 재난이 그를 피해 갑니다. 나머지 1/10은 수련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

히 없앤 도인을 지칭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문화에 있어서 도교의 독특한 상상력이며, 후대에는 연금술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다른 글은 자주 인용되는데, 귀에 익지만 다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현학파 시인 존 던(John Donne)의 설교사는 '자신이 하나 되어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은 없다...모든 사람의 죽음은 나의 슬픔이다, 나는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고 묻지 말라.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청 : 제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기대할 겁니다. 좋은 죽음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아까 쉬지린 교수님께서도 존엄하게 죽거나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미래의 죽음을 상상할 때 존엄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길가다가 차에 치여 죽어도 내 마음속에는 한 치의 탐욕과 집착이 없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 고승 전기를 보면 그 고승들이 모두 앉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좋은 환경에서 죽어야 한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계속 줄이는 삶을 살 겁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늘 더해가면서 삽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식입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다음과 같은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었다면 기쁜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버릴 때, 끝까지 버릴 때,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것이 강물처럼 오고 가고, 앞뒤로 돌진하고, 무엇이 남았나요? 그것은 단지 삶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매우 기쁠 겁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언젠가 아무개 교수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 핵심은 그 '죽는 모습'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평생의 마지막 염원이 번잡하지 않은지, 욕심이 있는지,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불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만약 제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이 점이 바로 제가 노력하는 방향입니다.

쉬지런 :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죽습니다. 삶과 죽음은 같은 과정입니다. 장강이 머물 때, 저는 병원에 그를 보러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응급처치를 당했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생명이 곧 끝나더라도 안경을 똑바로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위안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엄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선생은 말년에 암에 걸렸고, 생전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응급조치하지 말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왜? 그의 생각에, 만약 한 사람이 그의 뇌가 죽으면, 생각할 수 없고, 의식을 잃으면, 생명은 무의미합니다. 왕 선생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생각을 할 줄 알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의 손에는 마침내 죽음을 향해 가는 배표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종교와 문명에서 죽음과 생사의 의미를 알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유롭게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면, 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대인의 안식처' 시리즈는 계속해서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고난, 불안, 탐욕, 허영, 질투 등 인간 본성의 다른 측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